



파호초, 강창역 ‘학생작품 전시회’

대구파호초등학교(교장 이정원)는 지난달 19일(목)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인근 강창역 전시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주제로 학생작품 전시회를 실시했다.

파호초는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를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책임 규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1~6학년까지 학생작품 30점이 전시됐으며, 일반 회화작품뿐만 아니라 포스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저마다 학생들이 꿈꾸는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의 모습과 희망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친구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 생활을 지켜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아이들의 작품을 관람한 학부모는 “아이들 그림을 보니 너무 반기웠고, 서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책임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학교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료제공:대구파호초등학교>



국립대구과학관, 전시해설 신규 프로그램 실시

국립대구과학관(관장 이난희)은 순회 해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단체관람객을 위한 해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 해설 프로그램을 추가해 운영한다.

신규 해설 프로그램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4일(토)~20일(금)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21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규 해설 프로그램은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과학관의 대표 전시품 및 상설 전시 1~4관의 주요 전시품과 관람 동선을 소개하는 ‘웰컴해설’과 리뉴얼된 신규 전시관의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상설전시 시간정복’이다.

신규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해설 후 질의응답을 통해 과학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끊임없는 신규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과학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신규 해설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할 경우 과학관 홈페이지(www.dn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670-6205

<자료제공:국립대구과학관>

◆ 프로그램 일정

| 프로그램 | 구분 | 대상 | 정원 | 참여 방법 | 소요 시간 | 운영시간 | 운영장소 |
|-------------|-------|-------|--------|-------|--------|----------------------------------------------|-----------|
| 웰컴해설 | 단체 해설 | 초등 이상 | 제한 없음 | 현장 참여 | 15분 내외 | 주중 (1회차)09:40 (2회차)10:10 (3회차)14:10 | 1층 로비 |
| 상설 전시 시간 정복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30명 내외 | 현장 참여 | 30분 내외 | 상시 운영 (1회차)14:00 (2회차)15:30 | 상설 3관, 4관 |



대실유, 조부모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의 날

대구대실유치원(원장 이선주)은 지난달 24일(화) 유아와 조부모가 함께하는 흥겨운 전통문화 체험 축제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의 일환으로, 조부모님을 초대해 우리나라의 옛 문화를 유아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꽃잎반 유아의 할머니는 “손주가 만들어 주는 송편도 맛있게 먹고, 같이 떡지도 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료제공:대구대실유치원>



대구옥빛유치원, 3대가 참여하는 ‘한마음 가족운동회’

대구옥빛유치원(원장 안영희)은 지난달 23일(월), 25일(수) 양일간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대구옥빛유치원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

특히, 조부모가 참여한 ‘돼지몰이’ 게임은 운동회에 가장 큰 함성과 박수를 받았다. 가족운동회에 참석한 한 조부모는 “가족과 함께 땀 흘리며 행복한 시간이었다. 손주의 유치원 생활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전했다. <자료제공:대구옥빛유치원>